

난팡조우모(南方週末) 사태의 요인 분석을 통해 본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윤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 연구 배경
2. 기존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법

II. <난팡조우모> 사태

1. 사건일지
2. 발생 원인 및 해결방법

III. < 난팡조우모 > 사태 발생요인분석

1. 지리적 요인
 - i) 홍콩과 인접
 - ii) 광둥성의 노동운동 발전과 NGO
2. 정체성 요인
 - i) 광둥사람의 강한 정체성
 - ii) 정치에의 무관심
3. 경제적 요인

IV. 결론

참고문헌

< 초록 >

본 연구는 2013년 1월, 광둥성의 광저우에서 일어난 <난팡조우모(南方週末, nanfangzhoumo, 남방주말)> 기자들의 파업 사태(이하 <난팡조우모> 사태)가 발생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난팡조우모> 사태가 일어난 후 세계의 많은 기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중국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경제적 성장 끝에 민주화로의 이행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광둥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홍콩과 광저우에서 열흘간 진행된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경제 성장 및 개혁 개방 후 빈번해진 대외교류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의문을 품었고, 인터뷰 및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한 결과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광둥성이 가진 지리적인 요인과 정체성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보았다.

물론 광둥성의 이러한 특징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이번 <난팡조우 모> 사태 뿐 아니라 ‘우칸촌 시위’ 등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결과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품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광둥성이 민주화를 견인하기에 이로운 요인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광둥성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정치 과정을 포함한 실험주의적 성격이나,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서방국가들이 재단한 민주화보다는 중국식 당내민주화에 더 관심을 갖는 등의 모습은 당분간 중국의 민주화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중국 공산당이 당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예측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정치, 민주화, 남방주말, 난팡조우모, 광둥, 광저우

I. 서론

1. 연구 배경

중국은 냉전 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국가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강력한 당 국가체제를 유지해나가면서 정치적 좌(左), 시장경제로의 경제적 우(右)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혹은 아슬아슬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질서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의 민주화는 많은 중국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개혁개방, 천안문 사태, 지도자 교체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의 민주화는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 또한 중국 사회를 이야기 하는데 큰 부분이였다. 사실 중국에서 기자들은 언론자유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시민은 이를 추동 할 만큼 조직화되지 않은 게 오늘날 중국의 현주소다. 국제 언론환경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179개국 중 173위에 그쳤다.¹

2013년 1월,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다소 어수선했던 중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선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다. 광둥(廣東)성 기관지인 <난팡르바오(南方日報)>를 모회사로 하는 남방일보 신문사그룹의 자회사인 <난팡조우모> 기자들이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비공개적인 합의 끝에 결국 기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간되면서 해결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 사건은 20년 만에 주요 언론사가 정부에 반대해 공개 파업을 강행²했다는 점에

¹ PRESS FREEDOM INDEX 2013, 국경없는 기자회,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3,1054.html>)

² Shi Jiangtao, "Southern Weekly censorship row escalates as staff strike, hundreds sign petition", South

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물론 언론인들의 저항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발달이 가속화된 2000년 이후 공산당과 기자들 간 마찰이 심해졌다. 2005년엔 베이징의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 기자들이 편집국장 해임에 항의, 3일간 제작을 거부했다. 2009년엔 경제전문주간지 차이징(財經)의 편집장과 기자 60여명이 사표를 낸 일도 있다. 1998년 창간된 차이징(财经)은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로 유명했는데, 편집장이 경영진과 갈등으로 물러나자 60여명의 기자도 동반 사퇴했다.

최근 있었던 ‘신콰이보 사건’³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유력지 <신콰이보>는 <난팡조우모>와 함께 대표적인 반정부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언론 중 하나이다. 10월 23~24일 자사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천용저우(陳永洲)를 석방하라며 1면 정 가운데에 ‘請放人((체포된) 기자를 석방해달라)’을 크게 게재한 뒤, 다음날 다시 1면에 이어 5면 전면을 할애해 폐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국영기업에 대한 통렬한 비판, 기자의 구속, 매체의 저항으로 인해 인터넷에는 신콰이보를 응원하는 글로 넘쳐났고, 다른 언론 또한 이 사건을 다루며 지원했다. 중국 언론민주화 투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 했다. 하지만 그러나 26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나온 천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고 실토했다면서 언론 민주화 투쟁은 ‘부패 기사 스캔들’로 급하게 반전됐고, 신콰이보는 1면에 “천 기자가 뇌물을 받고 허위 보도를 했다”며 사과문을 냈다. 이렇듯 지금까지 언론의 저항은 별 다른 변화 없이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이는 <난팡조우모> 사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난팡조우모> 사태나, <신콰이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난팡조우모> 사태는 광둥성 당 위원회와의 협상에서 튀진(陳震) 선전부장을 적당한 때 경질하겠다고 했고, 그 외의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신문을 재 발행하기 시작했다. <신콰이보> 사건은 당사자인 기자가 ‘부패 기사’로 밝혀지면서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다. 일부에서는 천 기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 다음날 <신콰이보>에 사과문이 게재되면서 자유언론을 외쳤던 사람들은 또 한 번 실망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팡조우모>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서방세계와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China Morning Post (2013-01-07)

³ 지난 9월 26일 신콰이보는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국영기업 중롄중커(中聯重科)의 재무 비리를 고발하는 첫 기사를 내보냈다. 올해 8월 8일까지 신콰이보가 중롄중커를 겨냥해 내보낸 기사는 18편이고, 이 중 천 기자 이름으로 나간 기사가 14편이다. 중롄중커 경영진이 신문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고, 가오휘(高輝) 중롄중커 부회장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천 기자와 신콰이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자, 천 기자와 신콰이보는 각각 가오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이 법정으로 가자 중롄중커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경찰은 두 달여 동안의 조사 끝에 10월 18일 천 기자를 전격 체포했다. 죄목은 ‘상업적 신뢰도 훼손죄(損害商業信賴罪·형법 221조)’.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고 타인의 영업 신뢰도와 상품 명예에 손해를 입히며 타인의 권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다.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국내 외의 많은 기자들은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서 이러한 시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인용해, <난팡조우모> 사태가 일어난 것은 광둥성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즉, 경제 및 사회발전과 병행해서 언론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경우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장밋빛 미래를 펼치는 기사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사태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 안정이 <난팡조우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었다는 점, 이 사건이 중국의 민주화를 논하는데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이 이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민주화가 곧 올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난팡조우모> 사태에는 광둥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즉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지리적 특성과 광둥성의 정체성 요인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2. 기존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법

<난팡조우모> 사태 외 광둥성이 중국의 민주화를 견인할 가능성에 대한 기존연구는 충분치 않다. 기존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중국은 광대한 토지를 가졌고, 다양한 민족과 역사, 문화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한 국가'로서 연구되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한 국가로서 연구하는 것이 부족함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별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는 광둥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시위 (<난팡조우모> 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발생한 <신징보> 사태, 우칸춘 사태, 그 외 많은 노동 시위 등)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나 지도자의 역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2013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홍콩과 광저우에서 실시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광저우 시민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팡조우모> 사태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광둥성만이 갖고 있는 다른 변수에 의해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자유주의적(진보적)이거나 반정부 성향의 언론이 존재 가능하며, <난팡조우모>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즉, 역사적으로 광둥성은 지리적 요인과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상징적인 시위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결과들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난팡조우모> 사태

1. 사건일지

2013년 1월 3일, <난팡조우모> 신년호 특집기사 “中国的梦，宪政的梦”가 왜곡되어 발간되고 일부 기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4일, 전직 기자들은 검열을 한 장본인인 튀전(庾震) 광동성 선전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5일에는 현직 기자들이 2012년 한 해 동안 기사 1000여건이 당국 검열로 삭제 및 수정되었다고 웨이보를 통해 폭로했다. 6일, 사측이 당국의 검열이 없었다는 성명을 내자 현직 기자들은 파업 선언을 하고 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중국 여배우 야오첸(姚晨), 배우 천쿤(陳坤), 스타작가 한한(韓寒), 대만 여가수 이닝징(伊能靜), (전)구글 차이나 사장 리카이푸(李開復),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런즈창(任志强) 등의 유명 문화계 인사들의 파업 지지가 이어졌다. 또한 <난팡조우모>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으라는 베이징 선전부의 협박에 <신정보>는 편집인의 서명 없이 신문 20면의 최 하단에 게재하고, <난팡조우모>를 응원하는 글을 에둘러 쓴 ‘南方的粥’⁴이라는 칼럼을 실는 등 응원했다. 중국 인민들의 웨이보를 통한 응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 9일 저녁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고위층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은 이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선전부 류윈산(劉雲山)을 질책했고, 기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서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다. 하지만 관망하던 경찰의 태도는 바뀌었고, 시위대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장애인 운동가와 광저우 공업대 학생 4명을 연행했고, 13일에는 사복경찰들이 포산(佛山)에서 온 지지집회 참석자(인권운동가 쑤창란(蘇昌蘭) 등) 30명을 연행했다. 또한 당국은 난팡조우모를 지지하는 리카이푸, 런즈창, 이닝징 등의 연예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의 진보적 작가 리청핑(李承鵬)이 출판기념회에서 보수인사들에게 폭행당하고, 지지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대치하는 등의 사건 또한 일어났다. 이런 와중 11일에 <난팡조우모>는 다시 발행을 시작했지만 파업 관련 내용 없이 신년특집호 기사의 오타 정정과 함께 ‘정부의 언론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을 뿐이었다. 또한 후춘화(胡春華) 광동성 당서기는 당 위원회 회의에서 사상부분의 주도권을 당이 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하기도 했다.

<난팡조우모>의 사건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단순한 파업 시위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기자들이 언론 검열에 공개적으로 저항했고, 이는 반정부 성향뿐 아니라 언론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체제에 대한 시위이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체제에 대한 찬반을 두고 대립하는 두 세력이 맞서기도 하였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인민들이 공개적인 지지를 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의 힘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제18차 당 대회 후 시진핑 체제로 바뀐 후, ‘개혁’이라는 단어는 인민들에게 낯설지 않았고, 이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중

⁴ 一碗热滚滚的砂锅粥，来自南方大地，刚端到桌子上的时候，粥还在里面翻滚，滚烫，它似乎也有一颗勇敢的心，在冷的夜里，张嘴都是白气，尘世折腾，惟有温暖与这碗粥不可辜负。一碗粥，告诉我们安慰和爱的力量。（“南方的粥”，<新京报> 2013-01-09 <http://www.bjnews.com.cn/lifestyle/2013/01/09/243557.html>) (검색일 : 2013-11-29)

국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2. 발생 원인 및 해결방법

<난팡조우모> 사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난팡조우모>는 원래 중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정부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열망과 선전부의 계속된 언론 감시와 기사 검열로 인한 불만이 이번 신년호 특집 기사에 대한 과도한 검열이 기자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하나는 기자들이 네티즌들의 비난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난팡조우모>가 정부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더라도, 기자들은 선전부의 검열에 그리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난팡조우모>의 신년호 특집 기사는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진보적인 인민들에게 큰 관심이었는데, 신년호 특집 기사가 검열, 수정 된 후 어린이도 틀리지 않는 오타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들을 실망시켰다. 그 후 많은 독자들에게 비난과 욕설, 비하 등이 계속 되자 기자들이 웨이보를 통해 검열된 사실을 터뜨렸고, 이에 대한 사측의 반응에 파업 사태까지 갔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태는 이틀 만에 비공식적인 합의 끝에 기자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로 복귀했다. 하지만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강경진압이 며칠 간 이루어진 후 <난팡조우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발생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라면 미래를 ‘기약’ 할 수 있겠으나, 후자라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 난팡조우모 > 사태 발생요인분석

1. 지리적 요인

i) 홍콩과 인접

광둥성은 홍콩과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했고, 영국으로 할양이 된 후에도 이웃해 있다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홍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반환 전에도 홍콩의 본토 투자액 중 90%가 광둥성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서로 경제적 교류가 많았고⁵, 인적 교류 또한

⁵ 신영수, 「식민유산」씻고 「대만통일」지렛대로, 경향신문, 1996-07-01 (검색일 : 2013-12-01)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개혁개방 이전까지 홍콩은 세계가 중국을 보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반환 이후에는 중국 대륙은 홍콩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경제무역긴밀화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정식 명칭은 “내지와 홍콩 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을 위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按排)”)을 체결하는 등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적 교류와 더불어 연안 지역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지역 간 통행 서비스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광둥성은 몇 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왔다. 첫째는 언론이다. 사실 광둥성의 여러 도시는 홍콩 반환 이전부터 홍콩의 신문을 구해서 읽을 수 있었고, 지금도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중국 내 기관지에 보도되지 않는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에 부정적인 홍콩 언론의 목소리 또한 함께 들을 수 있었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와 사상, 혹은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이 여타 지역보다는 덜하다. 홍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요인을 바탕으로 사회활동가들이 국내외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홍콩-선전(深川)-광저우(廣州)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홍콩과 선전을 통해 해외 등지의 많은 자료를 접하고, 이를 공유하며 강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난팡조우모> 사태에도 1월 7일에 기자들과 함께 파업시위를 벌인 20~30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홍콩과 선전에 거주하면서 광저우에 있는 사회활동가들에게 연락을 받아 기차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해산 후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⁶

ii) 광둥성의 노동운동 발전과 NGO

공식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등록된 시민단체는 2009년 기준 431,069개이다.⁷ 물론 이들 대부분은 GONGO(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Government-owned NGO)이고, 중국 정부에 의해 지난 20년동안 설립되어왔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NGO의 역할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발전해서 정부가 시민을 통제하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연결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토크빌주의적인 견해이고, 또 하나는 조합주의적 견해인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도전을 막고, 시민단체를 제어하고 감시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권

⁶ 사회활동가 위강(余剛) 인터뷰, 광저우 (2013-01-26)

⁷ 《中國社會組織年鑑》(2010) (김동하, “중국 NGO 현황과 제도 연구”, 『중국학』, 제40호 (2011) p.491 재인용)

위주의 정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Gallagher는 여러 연구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계는 매우 조건적이다.'라고 주장했다.⁸

광둥성의 경우,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많은 외국자본의 공장들이 설립되었다. 그 때문에 농민공의 이주 역사가 가장 길고, 그 인원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문제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음의 농민공 NGO의 건립은 해외 NGO의 지원하에 일부 각성된 지식인과 언론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농민공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그것의 해결에 대한 필요의 절박성, 정부 정책의 부재 등이 민간역량에 의한 농민공 NGO의 생성과 발전의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초기 지식인 중심으로 설립되었던 농민공 권익보호 NGO는 농민공의 의식과 역량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농민공의 현실과 필요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농민공 스스로에 의해 설립되었다.⁹ 노동운동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중국 남부 노동자의 자발적 파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했다.¹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들이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주 적은 도움 혹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의 운동을 구성해왔다.¹¹ 그 결과 중국의 노동조합들은 보통 당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영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광둥성의 조합들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주강삼각주에서 200여건의 파업들이 있었지만, 당시 광둥성 서기였던 왕양(汪洋)은 이러한 파업들이 정치적 안정에 위협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파업은 해결 후 주모자들이 검거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지만 광둥성은 예외였다. 모든 노사분쟁이 30~40%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을 장려했다.¹²

동부 연안지역이자 경제특구라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광둥성에는 많은 외자 공장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 더불어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외부의 도움이 있었지만, 자신들 스스로

⁸ Anthony J. Spires. "Contingent Symbiosis and Civil Society in an Authoritarian State: Understanding the Survival of China's Grassroots NGO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3 (July 2011), pp.3-5

⁹ 정주영. "중국 정부와 NGO의 자원의존적 합리적 선택으로의 관계의 변화 : 사회배제 패러다임에서 중국 정부와 농민공 NGO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4호 (2012).

¹⁰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1993년~2005년 사이 큰 파업이 10,000건에서 87,000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연간 평균 20%의 증가이다. 또한 중재된 노동 쟁의의 수는 2000년의 135,000건에서 2005년 31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평균 매년 18.4%씩 상승했다. (Chris King-Chi Chan and Pun Ngai, "The Making of a New Working Class? : A Study of Collective Actions of Migrant Workers in South China" , *The China Quarterly* 198 (2009) pp.287-288

¹¹ Chris King-Chi Chan and Pun Ngai(2009), pp.292

¹² 김태욱. "광둥(廣東)의 봄 : 광둥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5집 1호 (2012), pp.132

가 조직을 만드는 것을 터득했고,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시위나 노동합의 등을 통한 시위방법 등은 광둥성에서 일어난 노동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택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정체성요인

i) 광둥사람의 강한 정체성

지난 2천년 동안 누구도 광둥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진시황과 한무제도 그러했고 당나라와 송나라도 결코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둥 사람들은 보란 듯이 오늘날의 터전을 일구었다.¹³ 중원 지역에서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남하한 한족들이 주류를 이루는 광둥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한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방 문화보다 자신들의 문화가 낫다는 일종의 자존심 내지는 문화적 우월주의도 깔려있다.¹⁴ 이러한 자부심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를 견인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행동한다.

중국 남부인의 자문화, 특히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세 달 가량 앞두고, 광저우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지커광이 아시안게임을 찾는 외국인과 중국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저우TV의 프로그램을 푸통화(普通話, 표준 중국어)로 전환하자고 제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광저우 시민 3,000여명이 그들의 언어인 광둥어(Cantonese)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중앙 정부가 광둥어를 탄압하려 한다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며 광둥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닌 중국 남방문화의 정수이자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위는 홍콩 시민들과의 연대시위로 번졌다.¹⁵ 광둥어 지키기 운동에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려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1억의 인구, 부유한 경제, 독자적인 말과 문화 등 어찌 보면 독립 국가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1917~1927년 사이 베이징의 군벌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쑨원의 주도로 세 차례나 광저우에 광둥정부라는 지방 정권이 수립된 적도 있고¹⁶, 중앙집권화된 국민

¹³ 왕하이팅(王海亭) 저, 차혜정 역. 『넓은땅 중국인 성격지도』 (서울: 새빛에듀넷, 2010), p.357

¹⁴ 정재용. 『자본주의적 인간 중국 남부인』 (서울: 리더스북, 2012) p.205

¹⁵ 정재용(2012), p.198-202

¹⁶ 정재용(2012) p.206

국가를 규정하는 민국 헌법(1912년 수립)을 재수립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전국을 재통일 하고 싶어했던 쑨원에게 쿠데타로 맞서기도 하였다. 1920년, 광둥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이들은 연성자치 개념이 연방론 노선에 따라 국가를 건설하면서도 성 자치를 보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기에, '월인치월(粵人治粵)'이라는 구호 아래 광시 군벌을 몰아내고 쑨원을 권력의 중추에 회복시켰다. 하지만 연방헌법을 위한 광둥성의회 의원들의 계획을 접했을 때 쑨원은 현 자치, 강력한 중심, 자신을 총통으로 삼는 것에 기초한 연방제 계획을 제안했고, 이는 기각되었다. 1922년 6월 쑨원은 한 기자회견에서 광둥의 장성들에게 도전했고, 결과적으로는 6월 16일 쿠데타의 표적이 되어 결국 상하이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¹⁷ 외국 기업의 투자로 번 돈을 광둥성에만 사용할 뿐 중앙과 중국 전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과 따로 논데 대해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총리인 내가 광둥(廣東)성장까지 검입하라?"라며 질책한 적도 있다. 주 총리는 리장춘(李長春) 다리엔(大連)시장을 광둥성 성장으로 급파하며 중앙 정부의 지방 다스리기를 보여줬지만, 이 일을 뒤집어서 보면 중앙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광둥성에는 돈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⁸

광둥 사람들이 정치보다는 경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보여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 받는 경우나 자존심이 짓밟힐 경우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중앙정부도 광둥 사람들의 이런 잠재된 반항적 기질과 독자적인 말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¹⁹

ii) 정치에의 무관심

중국 남부의 거부들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선조는 정치의 중심무대인 대륙 북부와 중원지역 출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조상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원 및 북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상인집단이였다. 이들을 남쪽으로 내모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은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BC 259~BC210)였다. 고대부터 중국 대륙의 황제와 관료 세력은 대대로 상인계층을 멸시하고 박해했고, 특히 법가사상이 지배하던 진나라 시대는 상인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진나라가 새로 정복한 창장(長江, 양쯔강) 이남의 강남지방 중 월(越)나라 지역은 오늘날의 광둥, 푸젠, 저장, 윈난성과 광시좡족 자치구 등에 위치했다. 진시황은 상인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강북지역을 정착함으로써 통

¹⁷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저, 문명기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서울: 삼인, 2004) p.273-276

¹⁸ 매일경제 국제부. 『차이나 쇼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1) p.145-146

¹⁹ 정재용(2012) p.206-207

일국가의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새로 개척한 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강제 이송되는 과정과 이주 후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수많은 상인들이 희생되었다. 이후 한, 삼국시대, 남북조시대, 수, 당, 5대 10국, 송, 원, 명, 청 시대를 거치면서 북방 민족의 침입 등 정치적 요인과 홍수, 가뭄 등 자연적 요인이 겹치면서 북부 한족의 유력세력들은 남부로 이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은 미개척 지역에서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서서히 부상하게 된다.²⁰

정치에 대한 화제는 광둥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여겨 함께 일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한다. 개혁개방 이후 벼락부자가 된 광둥의 일부 상인들이 정경유착을 피하다가 몰락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광둥 상인들은 의도적으로 정치권을 멀리한다. 이러한 탈정치화 현상은 자신들이 진시황의 탄압정책에 의해 강남지방으로 강제 이주 당한 고대 상인들의 후예라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²¹,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앙 정부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전란 등의 피해를 그다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둥 사람들은 나라에 위기가 닥치거나 사회적 변혁이 요동칠 때마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시대적 조류를 이끌어갔다. 중국의 근대사를 되돌아보면 아편전쟁 이후 양무운동, 신해혁명 등의 정치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광둥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해 역사의 변혁을 이끌어갔다. 실제로 광둥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탁상공론으로 끝나기 일쑤인 정치가들의 말 잔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²²

이러한 의도적인 정치에의 무관심은 자연히 광둥지역을 중앙정부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자의적인 것인지, 아님 타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역사의 변혁을 이끌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지리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 중앙정치국 위원 중 광둥성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세 명에 불과했다.²³

3. 경제적 요인

광둥성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가장 잘살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광둥성의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9,700만 명으로 1억 명에 육박하고

²⁰ 정재용(2012) p.121-123

²¹ 왕하이팅(2010), p.361 ; 정재용(2012), p.129

²² 두위(杜瑜) 저, 하진이 역. 『중국인 사용 설명서』 (서울: 문화발전, 2011) p.107, 110

²³ 마오쩌둥 사후 개혁개방을 앞둔 中国共产党第十一次全国代表大会 (1977.08) 이후 중앙정치국 위원 중 12계(届) 廖承志, 叶剑英, 15계에는 谢非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5,354억 달러, 1인당 GDP는 5,800 달러에 이른다.²⁴ 중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했다. 중국 면적의 2%에 불과한 이 지역은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잘사는 경제중심지가 되었다. 누군가는 광둥성이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떠오른 이유를 중앙의 계획, 즉 개혁개방 정책 덕으로만 돌리기도 하는데 이는 단선적인 시각일 수 있다. 한나라 때부터 아라비아 등 외국과 무역을 하는 등 일찍부터 ‘중상주의적 발전노선’을 걸어온 광둥성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는 견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 때부터 2,000년 가량 끊이지 않고 북방에서 이주해온 상인집단의 자본주의적 개혁정신이 오늘날 광둥성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²⁵

립셋(Lipset)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증대하고 민주적 문화에 조응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며 도시화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이른바 경제결정론적인 근대화이론을 주장했다.²⁶ 경제적인 것이 역사상 많은 국가의 민주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이 “자유든, 민주화든 배부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몇몇 광저우 시민은 ‘살 만한 사람들이 민주화를 찾는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것이 역사상 많은 국가의 민주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천안문사태가 종전에 없는 큰 민주화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경제적 요인을 그 이유로 꼽기도 한다. 당시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2 달러에 불과했고,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층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기본적으로 소수의 선각자적 지식인과 학생들의 계몽운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와 같은 중국 사회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한 2001년 이후 중국은 실질적으로 민주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⁷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제력과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Martin Jacques는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진국인 동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Barry Naughton은 ‘중국 모델은 없다.’라고 말했다.²⁸ 즉, 광둥성과 중국 내 다른

²⁴ The Greater Pearl River Delta Business Council, *2008-2010 Term Report*

²⁵ 정재용(2012) p.125-126

²⁶ Seymour Martin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Mar, 1959), pp. 69-105

²⁷ 서진영, 「중국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기초연설」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0년 12월 3일)

²⁸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현상의 상당 부분들은 여타 다른 곳에서는 복제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중국

지역의 차이는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중국 모델이 없는 것처럼 광둥성이 가지는 요인들을 다른 지역에서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라는 점에서 광둥 모델은 있기 힘들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IV. 결론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20년만에 터진 공개적 언론파업사태인 <난팡조우모> 사태는 독립적인 요인이 아닌 지리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비공개적으로 합의 끝에 조용히 해결되었고, 중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금 무너졌다.

역사상 권위주의 국가 체제 내에서의 경제 성장은 언제나 경제적 혹은 정치적 문제로 무너져왔으며, 권위주의 체제 하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온 사례가 없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중국의 계속된 경제성장 후에는 민주화가 따라 올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곤 한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한국과 아시아 몇 개국에서 실시했던 독재개발 모델이고, 결국 한국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광둥성은 개혁개방의 1번지면서 중국에서 군체성시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록 군체성시위의 내용이 처음부터 반정부 시위나 민주주의 시위가 아니어도, 민주화 운동의 동인(動因)이 반부패 같은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 반정부 시위 또는 민주화 시위로 확대 되는 현상은 한국 등의 사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광둥의봄 129**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광둥성이 가진 이 복합적인 요인들은 중국의 민주화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로 보여질 수도 있다. 즉, 이런 요인으로 인해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민주화로의 이행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둥의 민주화로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의 실험주의적 성격은 국가 내 경제·정치 과정에 관한 문제를 실험을 통하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부의 논객들은 흔히 중국의 발전 경험을 특징짓는 것으로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거론하면서 때때로 당시 일어났던 정책 실험은 간과한다. 상당한 지방자치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일당국가의 감시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제 정책 중 경제특구 확립을 위해 시행된 실험과, ‘큰 사회, 작은 정부’를 확립하고자 하이난(Hainan)이 성(省)의 자격을 획득했던 실험을 대비해보면 알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Minglu Chen and David S. G. Goodman. “The China Model: one country, six author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3 (January 2012), pp.176, 178

수 있다. 경제특구는 대 성공작이었던 것에 비해 하이난의 실험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베이징은 이 실험을 중단했다. 이처럼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와 관련해 당 국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하고, 실험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어나갈 수 있다. The China Model: one country, six authors p.182

둘째, 학습효과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광둥성의 경제발전이 지식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 요인이 중국 전역에 퍼질 경우 결국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위를 진압 또는 방치할 경우 올 수 있는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시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낸 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시위와 사건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켜봤고, 조용히 해결된 사건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국내 문제를 봉합하는 방법을 학습해 나가고 있고, 그 경험은 분명히 앞으로 더 큰 사건도 봉합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들은 서방국가들이 재단한 민주화보다는 중국식 당내민주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속된 개방화 정책과, 경제성장은 중국을 세계질서의 중심부에 서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민주화 등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지만, 중국 정치는 당 국가체제를 잘 유지할 것이다. 인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내고, 낮은 수준의 정치적 요구를 잘 듣는다면 큰 수준의 정치적 요구까지 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서방국가들의 압박은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가진 자부심과, 19~20세기에 겪은 서방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통해 이에 맞서 중국 내부를 뭉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당 국가체제가 민주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존재한다. 중국은 정책을 실험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이를 지속할 것인지 거둬들 것인지 결정하는 등 실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도 분명 기득권층은 생겨나고 있다. 그 시기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득권층이 두껍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첫 번째 숙제이고, 두 번째는 당 영도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신 중국시기에는 혁명을, 그리고 과거 30년 동안에는 경제성장이 그 정당성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후에는 어떤 것이 이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안해야 하는 것이다. 제18대 당 대회 이후 시진핑과 리커창이 ‘민생’을 중요한 키워드로써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이와 연관성이 있다. 당의 영도라는 정당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 혁명시기 필요했던 것이 군중노선이었고, 개혁개방 이후에 군중노선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 되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정책을 수용하고, 피동적인 공중으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 ‘군중노선’

이라는 것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과거의 것을 이용하는 통치기법을 계속만 들어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전과 검열에 더욱 신경 쓸 것이나, 이는 강압적으로 막아서 터뜨리는 것보다는 구멍을 내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정교한 미디어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 저서

두위(杜瑜) 저, 하진이 역. 『중국인 사용 설명서』 서울: 문화발전, 2011.

매일경제 국제부. 『차이나 쇼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1.

왕하이팅(王海亭) 저, 차혜정 역. 『넓은땅 중국인 성격지도』 서울: 새빛에듀넷, 2010.

정재용. 『자본주의적 인간 중국 남부인』 서울: 리더스북, 2012.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저, 문명기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서울: 삼인, 2004.

S. Heilmann and E. Perry, Mao's Invisible H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 학위 논문

김진용. 2012. “中國 集團示威 對應戰略의 變化와 連續性 : 中央과 地方의 讓步戰略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 논문.

서주희. 2006. “(A)Study on the reform of Chinese press industry : evidences from 1996 and 2003 reform in Guangdong provinc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기춘. 2010.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희. 2013. “중국의 정치체제 변동 요인과 정치개혁 논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순. 2011. “중국 언론체제의 특성과 언론환경의 변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용. 2012. “中國 集團示威 對應戰略의 變化와 連續性 : 中央과 地方의 讓步戰略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학술 논문

김영진. “중동의 자스민 혁명과 중국의 민주화.” 『EAI 논평』 제19집 (2011).

김재관. “현대화 과정의 중국특색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12집 3호 (2012).

김태욱. “광둥(廣東)의 봄 : 광둥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5집 1호 (2012).

남종호. “중국 사회주의 민주이론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4집 3호 (2010).

손용택. “광저우(廣州)에 대한 지리적 고찰(考察).”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집 3호 (2011).

양한순. “우칸촌(烏坎村) 농민 시위를 통해 드러난 중국농촌의 토지문제.” 『동아시아 브리프』 제7집 1호 (2012).

이동영.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 『신아세아』 제19집 2호 (2012).

이문기. “중국 중산계층의 성장과 정치민주화 전망.” 『아시아연구』 제13집 3호 (2010).

이정남.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제13집 3호 (2009).

장현근. “민주주의, 민주화의 물결과 중국정치의 민주화.” 『自然科學研究所論文誌』 제16집 1호 (2011).

정주영. “중국 정부와 NGO의 자원의존적 합리적 선택으로의 관계의 변화 : 사회배제 패러다임에서 중국 정부와 농민공 NGO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4호 (2012).

주장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대한 중국 엘리트의 인식.” 『신아세아』 제19집 2호 (2012).

조영남.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한국과 국제정치』 제26집 4호 (2010).

Anthony J. Spires. “Contingent Symbiosis and Civil Society in an Authoritarian State: Understanding the Survival of China’s Grassroots NGO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3 (July 2011).

Chris King-Chi Chan and Pun Ngai. “The Making of a New Working Class? A Study of Collective Actions of Migrant Workers in South China.” *The China Quarterly* 198 (2009).

Minglu Chen and David S. G. Goodman. “The China Model: one country, six author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3 (January 2012).

Seymour Martin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Mar, 1959)